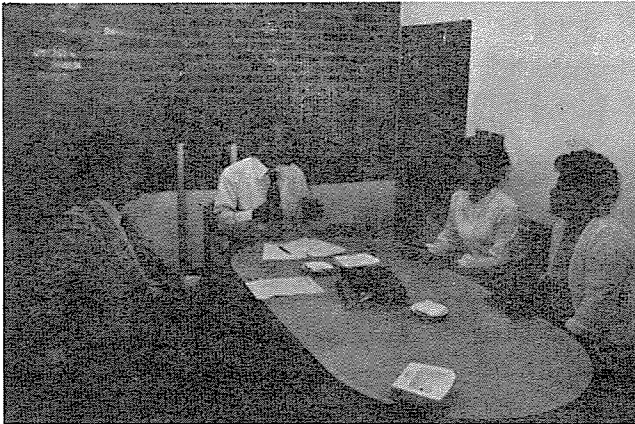


“좋은 單獨住宅의 條件”

設計者와 使用者와의 이야기 /



/ 참석자 /

- 사회 / 張錫雄 <아도무건축대표·본회회원>
- 대담 / 金奉勳 <신신건축연구소대표·본회회원>
/ 黃寅善 <주부교실조직부장·주부>
/ 郭靜子 <주부교실 소비자부장·주부>
- 일시 / 1981. 9. 4 일 / 본회 회의실

□ 건축사에 대한 신뢰가 좋은 집 만들어

□ 張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單獨住宅이 주거환경으로서 과연 적합한가, 設計面에서부터 施工, 그리고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주택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또 그 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자의 입장에서 밝혀내어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뜻에서 대담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두분께서는 主婦로서 더욱 주택에 대한 여러가지 면을 알고, 느끼고 계실텐데...

□ 郭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고하면, 본인이 직접공사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업자에게 속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자재선택같은것이 특히 심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힘이 훨씬 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할까요...

□ 張 집을 짓는다고하는것은 개인으로서는 役事가아닙니까? 그러한 役事를 만족스럽게 맺음을 하기 위해서

는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설계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공을 하는 업자도 마찬가지며, 또 건축주인 입주자도 어려움이 많게 마련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과 같이 전문가에 의해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해서 하나의 집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歷史는 그리 오래된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건 사실이고 그가운데서 불량 설계 불량 시공으로 인하여 일반의 인식이 안좋았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되겠죠.

□ 金 집을 짓는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과정이라고 하겠는데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택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건축사는 건축주가 원하는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설계를 하게 되고 일단 설계가 끝나면 건축허가 과정을 거쳐서 시공에 들어가는거죠. 이때 건축사는 물론 공사 감리도하게 되고, 그것이 마무리 되면 준공 절차를 밟아 등기를 내고 그리고 입주할 하게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건축주가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때 비로소 좋은 주택이 세워지는 겁니다. 돈도 적게들고요, 건축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만족한 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 黃 건축주의 입장에서 볼때 집을 짓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펍 당황하게 되는데...

□ 金 그전 설계할 때 단계별로 건축, 전기, 위생, 난방 조경등으로 나누어 제대로 설계를 하고 견적을 하여 공사를 하게되면 그런일이 있을수 없죠. 그러나 공사중에 자재를 다른것으로 바꾼다거나 간막이를 바꾼다거나, 금액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 기능적인 개성을 갖춰야 좋은 집

□ 黃 또 짓고 살다보면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발견되는데 특히 하수도 문제라든가 방수, 보온문제등이 주부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꼽힙니다.

□ 張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돈만 많이 들인다고 좋은집이 되는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이상으로 값비싼 위생 시설이나 난방, 전기시설보다는 주택의 기능적인 부분에 좀더 치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유행에 따라 집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견한 소치에서 비롯된거죠. 누구네 집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집도 그렇게 해달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주택에도 나름대로 기능적인 개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즉 주위환경이라든가 거주인원에 따른 구조상의 문제, 또는 필요에 의한 배치상의 변화등이 반드시 고려돼야 되고 그런것들이 주택의 개성을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개성을 살린 설계에 의해 하나의 집이 지어져야 하지 단순히 유행에 따라 집을 짓게되면 수명이 짧아지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집이 되고 맙니다.

□ 郭 理想的인 주택이란것이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면서 느끼는 것은 배치면에서 좀더 이런것은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집을 예로 말씀드리면 위 치라든가 주위환경은 편 좋은편인데 설계가 안좋은것 같아요. 특히 필요이상으로 방이 많다든가 하다못해 출입문을 잘못 달았기 때문에 사용상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더군요.

□ 미래지향적인 주택설계 필요

□ 金 남이 지어놓은 집을 매입해서 그냥사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 예가 흔히 있게 마련입니다. 뿐만아니라 직접지어서 살다가도 이런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수도 많아요.

그만큼 단독주택이란 어떤면에서 가장 작은단위의 건축물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대형건축물보다 입주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워요. 생활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자기것이라는 재산으로서의 가치성 때문이기도 하겠죠.

때문에 집을 지을 당시의 여러조건, 특히 입주자의 가족수나 또는 경제적인 여건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되면 불과얼마를 못가서 불편한점을 느끼게 됩니다.

대개 가족구성인원은 5년정도를 주기로해서 변화가오게 마련이거든요. 어린애가 성장해서 독립된 방을 요구한다거나 그밖에 가구사용정도가 달라졌을때 5년전의 그것으로 충당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되고 건축주는 그런점에이해하고 건축사의 의도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 黃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붐을 타기전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곳곳에 단지가

생겨서 주거환경이 새모습을 보이게 됐고, 소위 문화주택이란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알고있고, 제 경우에도 그런 주택에서 살아본 일이 있는데, 지금도 없는건 아니지만 그 무렵에는 특히 집장사들이 많아서 그들이量産해 내는 집은 대개 불량주택들이 많았습니다. 겉은 번드레 하지만 실상은 낡림집으로 입주자가 꼴탕을 먹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런집들 때문에 그 주변의 집도 같은 취급을 당해 집값이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않아요. 즉 주거환경을 깨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할까요...

□ 張 네, 그런것으로 해서 사회문제화된 예도 있었죠.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도적인 미비점을 이용해서 그런집을 짓기도 했고 또 위법으로 짓기도해서 건축풍토를 어지럽혔던 때가 있었죠.

그런집은 사지를 말아야 하는데 건축물의 좋고 나쁨을 잘 몰라서 속아사는 예가 많았고, 한편으로는 투기로 매입할 경우도 많았죠. 문제는 집을 구입하는데는 주거환경과 사용상의 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구조를 잘 살펴서, 특히 주부들이 늘 활동하고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간혹 기능적인 면에서 動線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상의 배치로 주부들로 하여금 필요이상의 육체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엌배치를 잘못해 놓았다거나 거실이 통로가 되도록 해놓은 예가 있거든요. 당장 보기에 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사용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韓屋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과 방사이에 대청이 있어서 대청이 한날 통로구실을 한다거나 사랑방을 가려면 마당을 지나서 가는, 기능적인 動線이 고려되지못하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주택설계면에서, 환경조성면에서 바람직한 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아직도 집장사 스타일의 집 즉, 外華內貧한 집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이것은 대개 건축주의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생활의 容器라는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축사들에 의해 지어져야 올바른 주택이 된다고 믿습니다.

□ 人本中心의 주거환경이 중요

□ 郭 주위분들이나 친지들 가운데도 그런분들이 많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있는 분들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밖에 여건을 감안한 주택을 짓고 정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주택이 하나의 경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곳에서 오래산다거나 하지를 않기에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별로없어요. 단지경제적인 가치면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주거환경이라는것이 단순히 집이 놓여있는 주변, 즉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든 인간중심의 환경이라야만이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동네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집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 金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축적인 면에서 内的기조를 人本중심에 두고 설계를 하는 기법이 깊이 연구되고있고 실제로 그런 집을 짓고 있습니다. 흔히보면 우리나라의 주택들의 담장이 무척 높아요. 이런것이 이웃과의 단절을 유발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것은 많이 고쳐지고는 있으나 건축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압적으로 대문을 거창하게 만든다거나 집 전면을 필요이상으로 장식하는 건축양식은 어떤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해서 살벌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야성을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주거환경의 정서화에 힘쓰는 것이 현대 주거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줄 압니다. 주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 黄 동감입니다.

□ 張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편한생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이상적인 주거환경이란것도 불편 없이 살수있는 집,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유지에 있는 이상 좀더 기능적이고 아름다움이 가미된 주택을 만드는 설계자와 건축주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같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긴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